

지역대학 인재할당제

지방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아니 서울이 살기 위하여서는, 국가 전체가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바로 잡혀져야 하는데, 그 요체는 지역대학을 살리고 서울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지역대학 인재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교육개혁 위원회가 ‘지역고등학교에의 지역대학 입학할당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병폐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필자의 주장은 ‘지역대학 인재할당제’를 말한다. 즉, 주요 국가시험을 지방대학 졸업자 중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대학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막아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경쟁률이 높은 사법고시에서 300명 정도의 인재를 뽑고 있는데 합격자는 90%가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다. 그 모집인원을 각 지역의 인구비례로 해당 지방대학에 할당하자는 제안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인구가 510만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2%가 되므로 이 비율대로 해당지역 졸업생 중에서 36명을 뽑자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무한경쟁을 지향하는 세계화의 추세에 경쟁을 역행하는 ‘지역인재 할당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때 세계화가 가능하다. 서울의 과밀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값비싼 제품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경쟁력의 약화는 세계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을 육성하여야 하고 지방의 육성은 지역의 인재를 지방에서 키우는 방안을 통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지역인재 할당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길이다. 선진국인 영국, 독일,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인재 할당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주요 국가시험에 적용하게 되면 지역의 우수고교 졸업생들이 굳이 서울로 진학하기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S대 법대가 명문이 되는 것은 교수가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능시험 200점 만점에 190점대의 입학생이 있기 때문이다. 190점대의 학생을 전국에 골고루 갖자는 주장이다. 우수인재가 있으면 우수산업이 일어나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혹자는 지방에서 열심히 교육하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수능시험 150점대 학생을 받아서 190점대의 학생과 경쟁을



경북대 총장 박 찬 석

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자존심이 떨어지고 지역 발전의 핵이 되는 인제는 그나마도 서울의 자력 때문에 서울로 몰려가게 된다. 이의 대책으로서 주요 국가시험, 예를 들면 사시, 행시, 회계사 시험에서 지역의 인구비례로 지역대학 출신자에게 시험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지방의 고교 우수 졸업생이 서울에 가지 않을 것이다. 서울에 가면 시험에 합격될 기회가 적어지므로 지역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것이다. 지방에 우수한 학생이 인구 비례만큼 확보되면 지역의 대학이 살아난다. 서울에 시달린 2류, 3류의 대학이 아니라 서울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명문의 대학이 된다. 대구·경북의 경우 할당제로 인하여 시험에 200명이 합격하게 되면 학생은 2,000명이 입학할 것이다. 1,800명의 우수인재는 지역의 인재로서 지방의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지역산업이 육성되어야만 국가 전체가 체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자존심이 살아난다. 고등학교 졸업 때 우수한 학생이 두부 자르듯 서울로 가버린 뒷자리이므로 지역의 엘리트가 자존심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서울과 지역이 선택적으로 동등한 엘리트로 구성이 될 때 지역의 대학이 명문화될 것이다. 지역대학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지역간의 경쟁을 통한 국가발전이 일어난다.

셋째,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서울로의 교육 집중화 현상에 따라 대구·경북의 경우 매년 4,000명의 학생이 서울로 유학을 떠난다. 서울 유학비는 매년 1,052억 원으로 지역의 엄청난 자금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서울로 빠져 나가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 동창회 명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유학을 한 동창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10%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넷째, 서울의 집중문제가 해결된다. 교육의 지방분산은 인구의 분산을 가져와 서울의 과밀을 완화시키고 비용을 절감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갖게 하며, 따라서 국가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다섯째, 이 정책은 소수의 반대, 다수의 찬성으로 쉽게 성취할 수가 있다. 아직도 인구의 70%가 지방에 있고, 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도 지방출신이다. 서울과 지방의 문제이므로 지방 국회의원은 전부가 찬성할 것이고, 지방의 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지방대학에서 찬성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인구과밀을 걱정하는 서울시민에게도 환영을 받을 것이다. 단, 서울의 명문대학 측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